

한국적 상담의 필요성: 현실역동 상담

장 성 숙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정서와 문화에 적합한 한국적 상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그 대안으로 현실역동적 접근을 제안했다. 집단주의 문화권에 속하는 우리 나라 사람들의 특성은 서양인과 여러 면에서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의 개인주의 문화에 입각해 발전한 기존의 상담 접근들을 무비판적으로 검증 없이 우리 나라 내담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타파하기 위해 우선 우리 사회가 개인주의와는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았다. 집단주의 문화권 속에 사는 우리 한국인들은 정서적으로 정과 한에 길들여진 독특한 민족으로 관계 속에서의 조화에 역점을 두기 때문에 개인적인 성취나 능력보다는 인격을 중요하게 여긴다.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는 무엇보다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삶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상담에서는 내·외의 현실을 다함께 다루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실제 사례에 대한 예시를 통해 본 연구자가 제안한 현실역동 접근에서는 어떻게 상담했는지 밝혔다. 마지막으로 현실역동 상담에서의 상담자 태도는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보고, 이것의 이상적인 모델을 우리의 전통적인 부모상인 엄부자모에서 찾아보았다.

상담이 하나의 학문 분야로 우리 나라에 도입된 지 이미 반세기가 되어가고 있다. 1957년에 미국 교육 사절단이 한국 교육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일환으로 카운슬링 워크숍 및 교도교사

연수회를 개최한 이래 상담에 대한 교육은 많이 보편화되었다(이형득, 1992). 특히 아시아 재단의 원조로 1962년 서울대학교에 학생지도 연구소가 설립된 이래 대학교에서의 상담자 양성이

점차 활성화되었다(이동식, 1994). 그리하여 상담이라는 것이 이제는 우리 생활에 그다지 낯선 것은 아니다. 그런데 미국 문화의 산물이라고 일컬어지는 상담을 극동지역인 우리 나라에서 적절한 변화나 우리 문화권의 장·단에 대한 검증없이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런지는 진지하게 되짚어볼 문제다.

우리 식의 상담 방법과 개발이 많은 학자들이나 뜻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이미 역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서양인을 위주로의 서양의 상담이론을 기초하여 공부하거나 가르치기에 여념이 없다. 그러니 대부분의 상담자들은 여전히 서양식의 상담 틀에 맞추어 내담자를 조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담이 발달한 미국은 개인의 자율성 및 존엄성과 관련한 민주주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있었던 사회라고 한다(Shertzer & Stone, 1980). 이러한 사회에서는 개인의 선천적인 능력을 최대한으로 극대화시키는 사회적 자원요소가 풍부했고 또한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문화와 의식적 공감대가 활성화되었다. 이러한 풍토 아래 기존의 일방적인 하달식 교육 방법과는 다른 대화식의 상담 방법은 상당히 발달될 수 있었다. 그런데 미국 사회에서 개발되어 활성화된 다양한 접근 방식의 상담들이 196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아무래도 "WASP(White Anglo-Saxon Protestant)"라고 일컬어지는 백인 중산층의 문화적 가치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다른 민족이나 인종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이 고조되기 시작했다(Sue & Sue, 1977). 이 때 백인 중산층의 문화라는 것은 개인주의를 지향하고 독자적인 문제해결이나 의사결정을 강조하며 자율에 따른 책임을 요구하는 가치들을 포함한다. 그리하여 유럽 계통의 백인을 위한 상담 접근이 타민족에게 적용되는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점점 대두되면서 1970년대 이후부터는 비교문화적 상담이 발전되기 시작했다(Casas, Ponterotto, & Gufierrez, 1986; Copeland, 1983; Sue, 1977). 이러한 영향은 나아가 올바른 상담을 위해서는 타문화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다문화적 상담론을 대두시켰다(Sue, 1992). 다문화주의적 상담은 오늘날 상담의 제 4 세력이라고도 명명될 만큼 그 영향력이 매우 커지고 있다. 이것은 정신분석, 행동주의, 인본주의의 뒤를 이어 상담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추세다(Midgette & Meggert, 1991).

서양에서 이렇게 타민족의 문화에 대한 배려를 상담에서 강조하는 것에 힘입어 우리 나라에서도 서양에서 발생한, 즉 그 곳 문화에 적합한 상담이론을 문화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나는 우리의 상담 장면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일기 시작했다. 사실 일찍부터 서양의 정신치료 원리에 비유될 수 있는 우리 전통에서의 정신건강에 대한 논의는 있어왔다(김기석, 1967; 이동식, 1969). 김기석(1969)과 이동식(1994)은 동양인으로서 주체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서양의 정신치료는 우리 문화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도(道)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의 것이라고 평가하며 서양의 정신 치료나 상담은 앞으로 결국 도를 지향하게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동식은 상담이나 정신치료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주체성을 가지고 우리 문화의 보배를 발굴하여 잘 가다듬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윤호균(1982) 역시 동양사상에서 특히 불교와 정신분석, 인간중심을 비교해가며 상담의 토착화를 시도했고 현재도 꾸준히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에 공감하는 바가 크다. 이처럼 종교나 사상과 같은 대단위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이영희(1982)는 서양에서의 문화지향적 접근이 타민족이나 다

른 소수 인종에 대한 이해를 촉구하는 데에서 출발했지만, 우리는 동일 문화권에 동일 민족이기 때문에 다양한 하위 문화권들 간의 차이를 고려하는 것으로 문화 지향적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의 분들 이외에도 한국적 정서에 걸맞는 상담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상담의 토착화를 위해 논의한 분들이 꽤 있다(김득란, 1988; 김병태, 1986; 김창대 1994; 김태호, 1991; 설기문, 1993; 신혜경, 1990; 유성수, 1990; 이미선, 1997; 이은순, 1989; 이장호와 김정희, 1989).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 상담 분야에서 서양과는 다른 우리 나라 사람들의 특성, 전통, 문화 등이 많이 조명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는 우리 나라가 종교, 사회, 문화 등에서 서양과 어떻게 상이한가 하는 것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해 왔다. 즉 이제부터는 그런 차이점에 입각하여 실제로 우리 나라 사람들의 문화와 정서에 적절한 우리 식의 상담접근이 구체적으로 모색되어야 하리라 본다(장성숙, 1998). 그렇다고 실제 상담장면에서 동양식의 접근을 그동안 전혀 시도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정신치료의 궁극적 목표는 도(道)라고 역설하며 불교적 관점에서 조망해 온 이동식(1986)은 정신분석을 넘어 도(道)적인 정신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선사상이나 불교철학에 입각해 상담의 원리를 조명하는 것이 철학적으로는 그 의의가 깊다할지라도 변화 속에서 숨가쁘게 살아가는 대다수의 일반 내담자들에게는 요원한 것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오늘날의 우리사회는 동양에서 발생한 유·불·선 영향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양의 종교를 깊숙이 흡수하고 있다. 오히려 기독교의 사상은 오늘날 우리 생활에 가장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자는 한국적인 상담의 가능성을 종교적 측면과 연관시켜 논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우리 문화나 정서에 가장 적합한 상담에 대한 제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것을 위해 우선 한국 문화의 특성과 그에 따른 한국인의 심리적 특징을 살펴보도록 한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 생활에서 빈번하게 접하는 두 개의 사례를 예시해 그것들을 본 연구에서 제안한 현실역동 상담에서 어떻게 다루었는가를 논의하고, 나아가 현실역동 상담에서 요구되는 상담자의 태도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한다.

유교와 우리 문화

심리적 갈등이나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인간관계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담자가 결국은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상담이라면, 그것은 불가피하게 그 사회의 문화를 통합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 여기서 문화란 그 사회의 가치관, 도덕관, 신념, 세계관 등의 내면적 의식 구조와 생활방식, 풍습 등의 외형적 양식을 포함하는 것으로 크게 동·서 문화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동양문화와 서양문화의 대조를 통해 각각의 특징을 선명히 드러냄으로써 우리 문화에는 과연 어떤 특성이 독특하게 내재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내담자가 속해있는 그 사회의 독특한 문화의 틀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상담 효과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김태호(1991)는 기존의 상담 이론에 의거해 우리 나라 사람들을 상담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나아가 김창대(1994)도 이런 견해에 동조하며 적어도 상담에서는 증상에 대한 진

단, 목표 설정, 그리고 관계를 맺는 방식에 있어서 문화는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다. 왜냐하면 서양 문화에서는 증상을 경험하거나 표현하는 방식이 우리와 다르고,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겸손을 강조하는 우리와는 달리 서양에서는 자기 실현을 최고의 가치로 보며, 또 인간관계에서도 수직의 관계보다 수평적 관계를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문화가 어떤 요인 때문에 서양과 다르게 되었는지, 또 그 차이가 있다면 그것이 얼마만큼 사람들의 성향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 볼 문제다.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 문화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간주되는 종교부터 살펴보는 것이 합당한 순서라고 본다. 종교는 정신문화의 최고봉으로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중추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한국 문화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종교로는 누가 뭐라해도 유교라고 본다. 우리 사회의 집단주의적 경향을 결정하고 그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이 유학에서의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집단주의 영향으로 인해 한국인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복잡다단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끔 운명 지워졌다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한국인은 “나”라는 개인이 아니라 “우리”라는 구조 안에서 다양한 부분자로 살아간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라는 총체 속에서 살아간다고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한 조화인데 유교는 철저히 관계에 역점 두어온 실천철학이다.

유교에서는 남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덕목을 예(禮)라고 하며, 예란 인(仁)이 드러난 모습이라고 한다. 이것을 다시 설명하면, “인이란 자기를 이겨 예로 돌아가는 것(克己復禮爲仁)”(논어)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예는 세상의 질서를 의미한다(이수원, 1996). 유교에서는 이러한 질서를 다섯 가지 기본적인 인간관

계 즉, 군신(君臣), 부자(父子), 장유(長幼), 부부(夫婦), 붕우(朋友)의 오륜으로 표현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관계를 잘못한다면 그는 개인 내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문화권에서는 그 사람을 질서를 어긴 자로 원만한, 즉 건강한 사람으로는 간주하지 않는다. 유교에서는 정신병리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관계로 되돌아가는 방법으로 극기복례의 과정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장호(1989)는 여기서 극기란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는 내면적인 접근이며 복례는 자기의 행위를 규제하고 사회 규범적 행동을 하는 외면적인 접근 방법이라 했다.

이렇게 관계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유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특히 조선조에 이르러 우리 나라가 세계 역사상 가장 유교적인 나라로 치닫는 동안 우리 민족의 의식 구조와 가치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에 이르러서는 유교가 자율성 억제를 주도해온, 그리하여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주요 요인으로 배격되는 듯한 사회 분위기가 있기도 했다. 그것은 유교가 실생활에서 매우 구체적인 관계를 다루었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형식화되면서 허례허식을 낳는 원천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 본성 실현의 상담 접근을 시도한 이형득(1993)도 본성 실현에 미치는 여러 종교의 영향에 대한 논의에서 유교의 측면을 아예 배제하기도 했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종교로 불교보다 오히려 유교를 꼽으면서도 유독 유교에 대해서는 상담과 관련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사실, 유교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며 역할을 강조한다고 하여 개인의 가치를 소홀하게 여기는 것은 아니다. 관계를 제대로 정립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신(修身)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개인의 주체성을 무엇보다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유교에서 추구하는 조화(調和)는 건강한 인격에 의해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것은 본질적으로 개개인의 주체성 확립에 근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교가 개인의 가치를 억제한다는 것은 치우친 견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우리 전통과 관련시킨 상담 접근에 대한 논의로 불교의 영향 또는 불교철학에 대한 가치는 꽤 거론되었다. 상담에서의 궁극적 목표가 있는 그대로의 자기수용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해탈, 즉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 환(幻)에 불과한 현상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워진다는 불교에서의 궁극목표와 다를 바가 없다고 했다. 나아가 정신치료의 목표는 도(道)와 일치한다고 역설한 이동식과 불교에서는 진아를 발견함으로써 고통의 뿌리인 생사심마저 타파하도록 한다고 한 윤호균(1998)은 동양에서의 정신치료나 상담 목표는 증상제거 차원을 넘어 실존불안도 제거할 수 있는 보다 월등한 것이라고 역설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현대 생활의 복잡 다양한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무수하게 접하는 갈등이나 현실적 문제는 어떠한 것들인가. 대부분의 갈등 내용은 고도의 철학적 문제나 실존적 문제라기보다 인간관계에서 빚어지는 실제적인 것들이다. 인간은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기에 사회적 존재라고 일컬어지는 만큼 사람은 관계에서 자유롭고 또 관계에서 불편하다. 실제 상담을 해보면 사람들이 상담을 청해 올 때는 대부분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인데 그 부적응의 근원적 뿌리는 거의가 유년시절 부모와의 관계 정립이 탄탄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관계에서 파생된 문제는 상담 과정에서 상담자와 내담자간의 신뢰로운 관계체험을 통해 점차 개선되도록 하는 것이 상담이다. 상담은 본질적으로

이토록 원인, 결과, 치료에서 관계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화에 영향을 미친 종교적 뿌리를 찾는다면, 그 어떤 종교보다 관계를 절대 중시한 유교를 상담과 관련시켜 연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더구나 한국인의 정서와 행동양식은 아무리 서구화되어 개인주의가 확산되어가고 있다해도 여전히 집단 속에서, 즉 관계 속에서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김창대, 1994).

문화의 차이: 집단주의-개인주의

비교문화 연구에서 가장 큰 호응을 받고 있는 Hofstede는 세계 각국의 문화 차이를 권력거리 차원, 불확실성 차원, 집단주의-개인주의 차원, 남성성-여성성 차원에서 비교했다. 이들 중에서 현재 동양과 서양의 문화비교의 틀로서 가장 확고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기준이 집단주의-개인주의 차원이라고 하기 때문에(Triandis, 1990: 1995: 1998), 우리 문화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 문화와 서구 문화의 차이를 집단주의-개인주의 차원에서 살펴보는 것이 좋다(이수원, 1995). 그런데 집단주의나 개인주의를 개념화한 데에는 서양인들이 그들의 기준에 근거해 그들의 식으로 조망한 면이 있기는 하다. 사실 집단주의 문화에서 집단이 강조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개인의 가치가 쉽게 말살되거나 무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양문화와 서양 문화를 대비시킨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개념화는 나름대로 유용한 기능을 한다고 본다.

집단주의 문화란 한 개인이 그가 소속되어 있는 집단이나 조직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고, 개인적인 성취보다는 인간관계의 유지가 우선시되며, 집단의 가치기준을 개인의 가치 기준보다 소

중히 하는 것을 말한다(한규석, 1996). 이러한 집단주의의 배경은 인(仁)을 실천함으로써 개인의 사사로움보다는 전체의 행복을 추구하는, 즉 조화로운 공동체를 이룩한다는 유교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반면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개인이 그가 속한 집단이나 조직에서 정서적으로 얼마나 독립되어 있는가에 역점을 두는 만큼 구성원 각자가 갖고 있는 개성을 존중하고 권리를 귀중하게 여기는 정의를 우선시 한다(Miller & Bersoff, 1992). 따라서 여기에서는 인간관계 중심의 집단의 가치 기준보다는 개인의 가치기준에 의한 판단을 우선하며 개인적인 성취를 강조한다. 이러한 개인주의의 배경은 인간을 신의 성품인 이성을 지닌 인격적인 존재로 보며, 따라서 개인의 자유와 존엄을 존중해야한다는 기독교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기독교의 영향에서 출발한 개인주의에서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을 추구하며 자기를 실현하는 것은 자신만이 아니라 사회를 이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보았다.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이러한 차이는 삶의 여러 측면에서 서로 다른 특징을 나타내는데 이것을 몇 개로 정리 해 볼 수 있다(이수원, 1996).

① 타인에 대한 관심이나 배려 측면으로 의사 결정할 때 집단주의 사회의 사람은 집단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는 반면, 개인주의 사회의 사람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초점을 둔다.

② 집단주의자들이 자기가 지닌 것을 타인과 나누며 타인도 또한 자신에게 그와 같이 행동해 주기를 기대하는 반면, 개인주의자들은 남에게 신세지지 않으려 하고 스스로 자신을 돌보아 한다는 사고를 갖기 때문에 남에게 빌리려 하지도 않고 빌려주지도 않는다.

③ 집단주의자들은 자기가 속한 집단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집단으로부터 배척될 경우 이를 수치스럽게 여긴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는 특히 체면이나 눈치가 고도로 발달되어 있다. 반면 개인주의자들은 누구에게 인정받는 것이 삶의 목표가 아니므로 체면보다는 성취감을 더욱 중요하게 여긴다.

④ 집단주의자들은 인간관계에서 내·외집단에 따라 차별을 두어 소속된 내집단에는 친밀하게 행동하지만 외집단에게는 배타적이다. 반면 개인주의자들은 내·외집단에 따른 차별을 별로 두지 않고 공평함을 유지하고자 한다.

⑤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결속력이 강하여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고 있어 서로간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커 개인 생활의 침해도 잦다. 그러나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삶이 타인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서로의 영역을 분명히 한다.

⑥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윤리나 규범이 상황에 따라 규정되는 반면,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윤리나 규범이 보편적으로 정의된다.

⑦ 집단주의에서는 인간관계에 민감한 나머지 말을 아끼며 분위기에 따라 유보하는 것을 미덕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타협적이며 의례적이 경향이 있다. 그러나 개인주의에서는 대화의 내용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의사 소통이 솔직하고 주장적이고 명료한 것이기를 강조된다.

⑧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화합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갈등해소 방법으로 상대의 의무나 책임에 호소한다. 그러나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갈등 해결을 통해 얻게되는 이익을 일깨움으로써 협상과 같은 방법을 채택하고자 한다.

⑨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개인의 정서나 동기의 발현이 타인 중심적이어서 동정심이나 수치심 같은 정서가 주로 발달되었고, 동기도 대인관계 유

지에 필요한 친애욕구나 친화욕구가 발달되었다. 그러나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호오(好惡)와 같은 개인적 감정이 발달되었고, 동기도 성취동기와 같은 개인 지향적 동기가 발달되었다.

⑩ 추구되는 가치관에 있어서도 집단주의에서는 훌륭한 인격자를 이상적인 상으로 여기고 화목, 인화, 의리, 겸손, 충절에 가치를 둔다. 그러나 개인주의에서는 뛰어난 능력자를 이상상으로 삼기 때문에 자조, 자율, 독립, 공정, 자유, 솔직에 가치를 둔다 보다 구체적으로 자질에 있어서도 집단주의에서는 성실, 인내, 노력, 절제 등을 바람직하게 여기는 반면, 개인주의에서는 창의, 능력, 성취, 개성, 도전 등을 바람직한 것으로 삼는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집단주의 문화와 개인주의 문화의 차이는 실제 삶의 여러 측면에서 상이하게 나타난다. 세계가 한 울타리 내로 점점 좁혀지면서 동·서의 문화가 상호 밀접히 교류되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는 있지만 그래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의식저변에 내재해있는 자신의 정서적 문화에 동조하는 것 같다. 예를 들면, 현실역동적 접근을 시도한 집단상담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합부로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을 때 개인주의 문화에 익숙해 있는 듯한 신세대 젊은이들도 절반 정도가 가족들에게 누를 끼칠까봐 자제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므로 인간을 깊이 있게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 자신과 동시에 그의 환경, 즉 그가 속해 있는 사회의 정서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라고 본다.

우리 문화와 기존 상담 접근들과의 마찰

서양의 개인주의 문화권에서 사는 사람들과는

여러 면에서 다른 우리 나라 사람들의 고유한 성격 특성, 가치관, 행동 양식, 및 대인관계 등을 염두에 둔다면, 무비판적으로 외국의 학문이나 이론을 수입한다는 것은 곤란한 일이다. 더구나 정서를 다루는 상담에서 적절한 변형없이 서구 상담 이론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주체성의 상실로까지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서양의 상담 접근들이 우리 나라에 소개되어 갈등해결이나 문제해결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 주고 상담의 골격을 이루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그것들을 우리에게 맞게 다듬어 사용하는 주체적 태도가 필요할 때다.

우리 식의 상담 모형을 거론하기 전에 우선은 기존의 주요 접근들이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덜 적절한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① 우선 정신분석적 접근에서는 심리적 갈등이나 문제가 어디에서 기인했고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 현 시점에 이르게 되었는가 하는 점을 다른 어느 접근에서 보다 깊이 있게 규명한다. 그러나 내담자가 증상의 원인을 적나라하게 파악했다해도 이 접근법에서는 주로 전이를 통한 해결책을 시도하거나 통찰에 역점을 두기 때문에 자칫 머리만 비대해지는 이상적 가치추구에 머무르게 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정신분석적 접근에서는 주로 내면 세계에 대한 분석으로 심오하다고까지 하리만큼 치달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 많은 사람들의 당면 문제가 내면 세계의 불균형에 기인한 문제라기보다 외부 세계와의 관계에 있어서 취약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들이다. 물론 이들이 서로 독립된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담자에게는 문제에 대한 직접적 도움이 필요한 것이지 증상의 이해는 어디까지나 도구적인 것으로 우회적인 것이다. 더구나 우리 나라 사람들은 한 개인의 가치를 능력의 유무보다 사람들과 어떻게 융화하며 관계를

맺느냐하는 인격의 정도로 결정하기 때문에 내면 세계에 대한 파악보다 외부세계와 관계하는 태도에 대한 검증이나 지도가 실제 상담 상황에서 더 절실히 요구된다고 본다.

② 행동치료 접근에서는 행동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시도함으로써 가시적 효과를 이룩한다는 면에서 그 기여도가 꽤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것보다 비구체적인 것을 더 선호하며 전체주의적인 것을 지향하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보다 과학적인 형태를 취하는 행동치료는 왠지 가장 낯설어 하는 접근 중의 하나다. 더구나 한국인은 정과 한에 길들여진 민족으로서 체면과 눈치를 발달시켰는데(이규태; 1990) 갈등이나 문제를 그냥 읽어주지 못하고 측정 가능한 형태로 언어화시켜내야 하는 행동치료에 오히려 갑갑해 하며 신뢰를 덜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하여 이 접근 방식은 특히 우리 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친숙하지 못한 것으로 남아있는 상태인 듯하다.

③ 인간중심의 접근에서는 심정을 헤아려 공감해 준다는 면에서 이심전심(以心傳心)을 최상으로 여기는 우리 나라 사람들에게 상당히 호응을 받았다. 그러나 이 이론에서는 개인의 목표추구를 존중하며 각자에게는 자아실현 경형성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의 구현을 궁극의 가치로 여긴다. 이 접근에서는 각 개인이 자신의 목표를 스스로 선택하도록 강조하는 인간관이 철저히 배어 있는데 이것은 서구사회의 개인주의적 가치관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한국에서는 대개의 경우 내담자가 상담자를 조언이나 방향 제시를 해주는 스승으로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는 면에서 이 입장은 너무나 방임적이고 개인주의적이다. 따라서 자기 자신보다 가족 전체 우선의 입장을 취하는 우리사회에서 이 접근은 지나치게 개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때로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이장호와 김정희, 1989).

④ 비교적 근래에 부상하고 있는 인지적 접근에서는 정신역동적 접근이나 인간중심적 접근에서보다 상담자가 보다 능동적으로 개입해 마냥 늘어지는 상담 기간을 단축한다는 점에서는 명쾌하다. 그러나 원인에 대한 규명없이 사고의 진위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표면적이라는 한계를 드러내고, 또 정과 한으로 묶여진 민족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 한국인에게 정서를 배제한 이 접근은 자칫 미흡하게 여겨질 수 있다. 더구나 우리 문화권에서는 말과 말 사이의 의미를 중요하게 여기며 비언어적 교감을 가장 고차적 나눔이라고 여기는 만큼 언어화된 사고의 합리성 유무는 아무래도 우리 정서에 걸도는 감이 있다.

두 사례와 현실역동 상담 접근

이제 보다 구체적인 실제 사례를 논의해 가며 우리 정서에 맞는 상담 방법을 모색해보도록 한다. 여기에서 제시된 축약된 사례 내용은 집단주의인 우리 문화권에서 빈번하게 야기되는 갈등문제인데 이것에 대한 해결 방안은 우리 정서나 관습에 근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더 큰 문제로 갈등이 확산될 수 있는 대표적인 것들이다.

1. 혼수 문제의 갈등사례

얼마 전 어떤 부인은 집단상담에서 울먹이며 하소연하기를 시집 온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일찍이 홀로 되신 시어머니와 손위 시누이가 혼수를 적게 해왔다고 툴툴히 꾸짖을 해 힘들다는 것이다. 그래도 그 동안 남편만은 그런 물질적인 면에서는 초탈했으려니 하고 그런대로 지내 왔단다. 그런데 근래에 사업 실패로 곤란을

겪는 남편이 이제와서 은근히 시댁 식구들의 그런 푸념에 동조하는 듯하여 너무나 속상하고 억울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자기가 시집 올 당시 친정 어머니가 혼수를 많이 해주려고 해서 오히려 자기가 그냥 조촐하게 시집을 가겠다며 사양했었다고 한다. 친정 부모가 힘겹게 벌은 돈을 그렇게 과소비로 낭비한다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했단다. 그래서 부모님께, 우리끼리 노력해 잘 살테니 지켜봐 달라고 말씀드려 친정 부모님을 감동케 하기도 했단다.

집단에서 많은 젊은 사람들은 그 부인의 하소연을 듣고 그 부인의 시댁 식구들에 분개하며 그 부인의 태도가 옳았다고 용기를 주었다. 시집갈 때 혼수를 많이 해 간다는 것은 구시대의 관습으로 마땅히 퇴치되어야 할 것이라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말했다.

그러나 우리 집단 상담에서는 그 울먹이는 부인을 동조하거나 위로하기보다 다 자초한 일이니 억울해 할 것 없다고 했다. 그러자 그 부인은 지금까지 그 일에 대하여 주위로부터 위로나 공감을 받아왔는데 이러한 상담자의 말에 놀란 듯 했다. 그러한 부인에게 우리는, “옛부터 딸들은 혼인 날짜를 받으면 다 도둑이 된다고 했는데 당신은 어째서 해 준다는 혼수를 마다했소?” 라고 오히려 되물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상대방과 처지를 바꾸어 생각해보는 역지사지(易地思之), 즉 시어머니나 시누이의 입장에 서서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고 그러자 분위기는 반전되었다.

이 사례에서 추가로 밝혀진 역동은, 그 부인은 여동생에게 밀려 어머니의 관심을 얻지 못하고 늘 소외감에 시달렸다. 그러던 중 큰딸인 이 부인이 시집을 가고자 할 때 친정 어머니는 문득 안쓰러움과 죄책감에서 혼수라도 넉넉히 해주려고 했다. 그러나 큰딸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혼수보다는 어머니의 인정을 얻고자 혼수를 마다

함으로써 대견스러운 큰딸로서의 위치를 확고하게 굳혔던 것이다.

그 부인에게 우리는 덧붙여 말했다. 시어머니가 남편도 없이 외아들을 일류대에 보낼 때에는 세상에 둘도 없는 자랑스런 아들인데 그 아들에게 시집오는 며느리가 빈손으로 온다면 얼마나 서운했겠느냐고 했다. 또 남동생에게 용돈을 대어주던 누나도 동생에게 얼마나 많은 기대가 있었겠느냐 라고 말했다. 즉 아직은 이렇게 아들에 대한 기대, 그리고 남동생에 대한 기대가 큰 것이 혈연 중심인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고 했다. 이 부인에게 상담자가 이렇게 말한 취지는 갈등의 대상들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가족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여하튼 빨리 포용하는 것이 그 부인을 비롯해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문제는 시댁 식구들이 지금도 그 부인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래에 들어 남편의 태도에 대한 서운해진 그 부인은 지난 일들에 대하여 새삼 억울해 하며 대수롭지 않은 일에도 스스로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2. 어머니 봉양 문제의 사례

또 다른 사례는 연로하신 어머니를 모시는 것에 대한 부부의 갈등문제다. 얼마 전 고급 공무원으로 정년퇴임을 맞이한 남자인 내담자는 근래 당면한 문제가, 고령인 어머니를 셋째 며느리인 아내가 시집오면서부터 지금까지 25년 이상 모시고 살았는데 이제는 아내가 지쳐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얼마 전에 아내는 남편에게 간청하기를, 형제들끼리 상의하여 이제는 서로 번갈아가며 시어머니를 모시도록 말해달라고 했단다. 남편은 그 동안 함께 살아왔던 어머니를 다른 형제들에게 보내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오랜 세월동안 다

른 머느리들에 비해 홀로 고생해 온 아내의 말을 무시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사실 어머니의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독특한 성격으로 그 동안 고부간의 갈등이 꽤 있어왔는데 그 가운데 끼인 본인 자신도 어려운 세월을 살았다고 했다. 그리하여 솔직한 심정으로 이제 좀 즐기분해 지고도 싶고 그러나 자식된 입장에서는 선뜻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러한 이분의 갈등에 대하여 그 동안 측근의 많은 사람들은 아내의 간청을 남편이 들어주어야 한다고 했던 듯 하다.

그 분에게 제시된 본 연구자가 실시하는 상담에서의 방향제시는 어머니가 원하시는 곳에 머물게 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이고 효도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러한 도리는 천륜으로서 권리나 의무 또는 조건을 능가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부모와 자식간의 도리가 거론되자 그 분은 여러 가지 복잡한 다른 많은 이유들을 접고 마침내 자식다운 입장에 되돌아가 태도를 분명히 했다.

얼마 후 그분은 언급하기를, 어머니를 계속 모시고자 하는 자기의 입장에 처음에는 아내가 서운하게 여겼다고 한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자식된 도리를 분명하게 고수하는 자기를 부인이 든든하게 여기며 오히려 친구들 앞에서 주관이 분명한 남편에 대하여 자랑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결국 우리 의식 주변에는 효(孝)라는 개념이 굳건히 자리하고 있는데 균등이니 평등이니 하는 생각에 밀려 아차하는 순간에 그것을 잊어버린다고 했다. 그런데 이렇게 삶의 기준을 잃으면 갈피를 못 잡고 돌이켜 생각해보면 엄청난 수도 있는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 같다고 했다.

3. 현실역동 상담 접근

앞에서 살펴 본 두 사례는 우리 나라 사람들이

흔히 겪는 갈등에 관한 예로써 상담에서 자주 접하는 것들이다. 그런데 그런 갈등에 관한 해결책은 내담자의 제반 여건에 따라 다소 유연성 있게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겠으나 상담자가 어떠한 가치관을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방향지워진다. 만약 상담자가 서구 문화의 가치에 동조하는 사람이라면, 즉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 자기 주장성, 성취 및 자기생활, 그리고 수평적 인간관계를 보다 우선적으로 여기는 사람이라면 위의 두 사례에서 상당히 다르게 접근했을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대표적인 서구 상담 접근중의 하나인 정신역동적 접근에서는, 상담자가 주로 내담자의 억압을 풀어주어 응어리진 감정의 해소에 역점을 둔다. 즉 이 접근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내면 역동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을 해줌으로써 내담자가 과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도록 도와줄 뿐이다. 또 다른 대표적 접근인 인간중심 상담에서도 상담자는 내담자를 신뢰하고 수용해주는 태도를 통해 내담자가 충분히 이완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렇게 해줌으로써 내담자가 여유를 갖고 자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추구하도록 돕는 전략을 취한다. 이렇게 두 접근법은 주로 한 개인인 내담자의 주관적 세계에 관심을 두면서 그 개인이 살아가는 환경, 즉 외부 현실과의 조화는 직접 겨냥하지 않고 다루더라도 우회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경향이 짙다. 그리하여 기존의 상담에서는 내담자의 실제적 문제를 다룬다기보다 내적인 성격 문제로 축소화시켜 다루면서 외부 현실인 주위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간과했을 것이다. 이러한 상담은 한국 특유의 집단주의적 속성으로 정에 약하고 체면과 도리를 중요하게 여기며 눈치를 발달시켜온 우리 나라 사람들의 관계

적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미흡하게 여겨진다.

이 두 사례에서의 본 상담자가 시도한 접근은 소위 기존의 영향력있는 상담 접근이라고 일컬어지는 정신분석적 접근이나 인간 중심 상담 접근과는 달랐다. 즉 우리 전통이나 정서에 입각해 개인보다는 집단, 특히 혈연 중심의 가족관계를 중시하며 상호존중적으로 공존하는 길을 모색했다. 그렇다고 여기에서 관계에 역점을 둔다고 하여 개인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확대시키는 것이다. 공존한다는 것은 한 개인이 자신의 목소리를 분명히 내며 주어진 역할에서 당당할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니 만큼 개인의 주체성 확립을 무엇보다 기본으로 했다. 이러한 모색에 따른 방향 제시에 내담자인 당사자들은 수긍했고 그래서 자신의 욕구나 감정보다는 관계유지를 위하여 노력했다.

본 상담자는 우리 사회에서 추구하는 한 개인의 자유로움과 안녕을 관계 속에서의 조화라고 믿기 때문에 내담자가 사회관계 및 그러한 관계 속에서의 역할에 눈을 뜨고 그것에 충실하도록 고무함으로써 내담자의 적응을 돕고자 했다. 이렇게 내담자의 관계적 부적응과 갈등이나 문제를 그 개인의 존재적 차원에서가 아니고 다양한 관계적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우리 문화나 정서에 더욱 합당한 상담이라고 여겨진다. 이렇게 현실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역점을 둔 접근을 본 연구자는 “현실역동 상담”(Reality Dynamic Counseling) 이라고 명명했다.

현실역동 상담의 특성과 상담자의 역할

현실역동 상담에서는 그 이름에서도 시사하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비중을 두어

야 할 것을 현실이라고 여긴다. 현실은 관념이나 이론이 아닌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살아 숨쉬는 현장이다. 사실 현실만큼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것이 드물다. 현실에는 과거와 미래가 현존하고 너와 내가 공존하며 온갖 다양색이 다 함께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어느 것보다 풍요로운 곳이기도 하다. 그렇게 때문에 현실은 모든 복합적인 요인들이 내재되어 한시도 고정되어 있을 수 없는 역동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 살아가면서 그 때마다 현실의 흐름에 발 맞추지 못한다면, 그러한 삶은 그 자신이 아무리 능력있고 안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미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삶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는 관계 속에서 유연하지 못하면 그 자신만 힘든 것이 아니라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선의의 피해는 물론이고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집단주의적 문화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관계의 고립은 자신을 병들게 하고 관계거부의 부적응을 초래하여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심각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 한국적 상담에 대한 제안으로 제시한 현실역동 상담은 내·외의 현실, 즉 내담자의 내적 세계도 다루지만 그 못지 않게 외부 세계와의 관계를 가능한 한 직접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특성을 지닌다. 여기서 내담자의 외부 세계를 다룬다는 것은 그가 현존하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관계하며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일깨워 주는 것에 역점을 두어 현실에의 적응을 도모하는 것이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떤 심리적 매듭이나 옹어리 때문이기도 하지만 의예로 타인의 요구나 기대, 즉 내담자가 속해 있는 현 사회의 요구에 무지하기 때문인 것을 실제 상담 장면에서 많이 접한다. 그러한 내담자에 정작 필요한 것은 내면 세계를 분석하거나 이해해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인식의

확장이나 방향제시를 해주는 것이라고 요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려주고, 그가 처해있는 현실과의 조화를 위해 무엇이 걸림돌 본다. 즉 내담자에게 현실의이 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직면시켜 그가 제대로 적응하도록 적극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자가 6~7년 전부터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현실의 요구에 부응하는 형태의 현실역동적 상담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내담자들의 실제적 요구에 부응하기 때문인지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에서 현실역동적 접근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미 15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은 현실역동 상담이 우리의 내·외의 현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자리 매김 해 가고 있는 증거라고 본다.

현실역동 상담을 다른 상담접근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변화에 대한 내담자의 동기 촉발을 위해 분석이나 공감의 기능뿐만 아니라 직면의 기능을 빈번히 구사한다는 것이다. 변화하기 위해서는 내담자의 변화에 대한 의지가 하나의 결단으로 작용해야 하는데 이것을 자극시키는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이 직면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현실역동 상담에서는 상담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이 접근을 통해 상담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상담자가 무엇보다 내담자의 내·외의 현실을 제대로 보고 그것을 다룰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내담자를 그가 현존하는 바로 그곳에 적응해 가도록 적절한 안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실역동적 접근을 시도하는 상담자는 내담자의 내적 현실에 예민할 뿐만 아니라 외부 현실인 이 사회의 전통, 관습, 정서 등에 보다 면밀히 깨어있어야 하리라 본다.

사실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풍부한

감성과 반듯한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곤란하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상담이나 정신치료 분야에서는 감정의 억압이 증상을 야기시킨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주로 내담자의 억압을 풀어 주고 자유로운 감정을 경험하게 하는 것을 상담의 기본 과업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느 한 면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균형있게 작용할 때 비로소 원만하게 영위된다. 감정에 의해 사고가 결정된다기보다 오히려 사고가 감정을 결정한다는 상담에서의 인지적 관점도 있듯이 감정만을 지나치게 존중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본다. 그러기에 상담자는 내담자의 심정을 이해하는 대등한 사람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내담자가 상황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기준의 확립을 도모하는 자로서 기능 해야 한다. 이것을 위해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때로는 스승이 되어 지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처럼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는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면에서 현실 역동 상담에서의 상담자 태도는 기존의 상담 접근에서와는 확실히 차이가 난다.

그렇다면 과연 반듯한 기준을 심어 주고 풍요로운 감정을 지니도록 도와주는 상담자의 역할, 즉 어른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고 반문할 수 있는데 본 연구자는 이것을 “엄부자모”(嚴父慈母)의 상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엄부자모는 우리 전통 및 문화에서 이상적 부모상으로 자식에게 엄한 아버지 상을 통해 삶의 골격인 기준을 심어 주고 자애로운 어머니 상을 통해 감성을 살찌우게 하는 부모 역할이다. 바로 이러한 상은 상담자가 어른이기를 기대하는 우리 문화권에서 상담자가 필히 지녀야 할 역할이라고 본다.

참고문헌

- 김기석(1967). 도와 카운슬링. 학생지도연구, 경북대학교 학생지도 연구소, 12-16.
- 김기석(1969). 선의 심리학적 일 고찰. 한국 심리학회지, 1(2), 37-41.
- 김득란(1988). 아시아 지역의 상담: 토착상담 및 토착화된 상담을 중심으로. 학생생활연구, 강릉대학교 학생생활 연구소, 7, 129-141.
- 김병태(1986). 상담의 관점에서 본 동양 심리학의 가능성. 논문집, 8(2). 강원대학교, 363-372.
- 김창대(1994). 상담과학의 문화적 맥락. 청소년 상담연구. 제2호, 19-41.
- 김태호(1991). 외국상담 이론과 연구결과의 한국 사회에서의 적용. 대학상담 연구, 제2권 1호, 29-38.
- 설기문(1993). 다문화주의 입장에서 본 상담의 토착화와 한국적 상담의 가능성. 동아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지도연구 21, 43-62.
- 신혜경(1990). 문화지향적 상담모형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숙명여자 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원우론총, 제8집.
- 유성수(1990). 심리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동양적 접근에 관한 연구. 학생생활 연구, 제 16집, 광주교대 학생생활 연구소, 51-62.
- 윤호균(1982). 정신분석, 인간 중심의 상담 및 불교의 비교 I: 인간 및 심리적 문제에 관한 견해. 임상심리학보, 3, (1), 35-37.
- 윤호균(1998). 불교와 상담: 연기론과 유식론을 중심으로. 공감과 인간관계. 서산 강석헌 교수 퇴임 기념 논문집. 13-42.
- 이규태(1999). 한국인의 정서구조. 서울: 신원문화사
- 이동식(1969). 카운셀링의 철학적 정석. 학생연구(서울대), 제 7권 제 1호, 20-26.
- 이동식(1986). 상담의 동양적 접근. 상담의 이론과 실제(한국 대학카운슬러 협회편). 중앙적성출판사. 315-327.
- 이동식(1994). 상담의 동양적 접근. 대학상담학회, 서울: 중앙적성 출판사.
- 이미선(1997). 한국적 상담 이론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동국대학교.
- 이수원(1995).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넘어서: 「문화와 인지: 타인 이해의 연구를 중심으로」에 대한 논평. 한국심리학회 통계심포지움: 심리학 연구의 통합적 탐색, 188-195. 서울: 한국심리학회
- 이수원(1996). 올바른 부모역할, 올바른 자녀역할: 비교 문화적 관점을 중심으로. 대학생활 연구 14, 1-23. 서울: 한양대학교.
- 이영희(1982). 문화와 상담: 문화 지향적 상담을 위한 서론. 숙명여자 대학교 논문집, 제 23집, 119-144.
- 이은순(1989). 한국문화 종교적 측면에서 본 상담. 대학원 논문집(2).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59-74.
- 이장호, 김정희(1989). 동양적 상담이론 모형의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제 2권 1호, 5-15.
- 이형득(편)(1992). 상담이론. 서울: 교육과학사.
- 이형득(1993). 본성실현 상담의 이론적 배경. 한국발달상담 학회지: 발달상담연구 1, 27-29.
- 장성숙(1998). 한국인 정서에 적합한 상담 접근의 모색. 서산 강석헌 교수 퇴임 기념 논문집 간행위원회, 177-192.
- 한규석(1996). 사회심리학에서의 문화비교연구.

- 한국심리학회 동계 세미나: 심리학에서의 비교문화연구, 한국심리학회.
- Casas, J. M., Ponterotto, J. G., & Gufierrez, J. M. (1986). An ethical indictment of counseling research and training: The cross cultural perspective.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January, 64.
- Copeland, E. J.(1983). Cross-cultural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A historical perspective, implication for research and training. *The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62, 1, 10-15.
- Hui, C. H. & Triandis, H. C. (1998). Individualism-collectivism: A study of cross- cultural researches. *Journal of Cross-Cutlural Psychology*.
- Mdgette, T. E. & Meggert, S. S. (1991). Multicultural counseling instruction: A challenge for faculties in the 21st century.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0, 1, 136-141.
- Miller, J. M. & Bersoff, D. M. (1992). Culture and moral judgement: How Are Conflicts between Justice and Interpersonal Responsibilities Resolv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4, 541-554.
- Shertzer, B. & Stone, S. C.(1980). *Fundamentals of Counseling*(third ed.). Boston: Houghton Mifflin.
- Sue, D. W. (1977). Counseling the culturally different: A Conceptural Analysis.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March, 422-425.
- Sue, D. W. (1992). The challenge of multiculturalism: The road less traveled. *American Counselor*, 1, 1, 6-15.
- Sue, D. W. & Sue, D. (1977) Barriers to effective cross-cultural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4, 420-429.
- Triandis, H. C. (1990). Cross-cultural studie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In J. J. Berman(Ed.). *Cross-cultural perspectives: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1989. Lincon, NB: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Triandis, H. C. & Gelfand, M. J. (1998). Converging measurement of horizontal and vertical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118-128.
- Triandis, H. C. (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Boulder: Westview Press.

The Needs of Counseling for the Korean: Reality Dynamic Counseling

Sung-Sook Chang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s for a suitable counseling model to our culture. The characteristic of the Korean who live in the Orient is different from Western people in various aspects. For that reason, it is a problem to accept unconditionally the counseling approaches which have been developed in Western culture. To resolve such a problem, our collectivism which has been influenced by Confucianism was compared with Western individualism. Because they give much more weight on the harmony among people, they regard a person's personality as an important thing rather than a man's ability or achievement. Thus the counselor who lives in Korea should deal with all the intra and extra world of a client because our society is a collective community. That is, the counselor should deal with interpersonal relations as well as an intra-psycho conflict. The researcher also attempts to explain how to give counsel to the each of two clients in Reality Dynamic Counseling approach which is proposed for the Korean in this study. Moreover, it is contented that the counselor should assume the attitude of an elder in attempting Reality Dynamic Counseling. The ideal attitude of an elder in this approach can be taken out from a stern father and an affectionate mother who have been our ideal parent traditionally.